

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미추홀의 사람들						
사업개요							
구술자명	이광자	성 별	여	출생연도	1944		
면담자	조연희	소 속	미추홀시민기록단		감독자		
면담장소	주안3동성당			면담지원	이혜숙, 양지원		
면담 일시	2024년	11월	28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5분 49초
자료번호							
구술 개요	2006년 8월 31일 효성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한 후 지역에서 20년간 성당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훈장으로 가르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학교에서 봉사하는 어머니와 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이었던 양정자 선생님의 영향으로 그분의 출신 학교인 강릉사범대학에 진학. 교직생활할 때 학생들에게 엄마 선생님이로 불리며 창의적인 교육과 음악 교육으로 아이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힘씀. 그동안 했던 일을 수필과 소설로 써 노벨상을 타는 게 지금의 목표. “내가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성공했습니다”						
주요 색인어	교장선생님, 강릉사범학교, 음악교육, 거진국민학교, 황지국민학교, 산곡국민학교, 송의국민학교, 교직생활, 학익동법원, 연합초등학교, 이승기변호사, 엄마선생님, 원당고등학교, 교가, 작사작곡, 해외연수, 수업주의집중, 삼목분교, 효성초등학교, 정년퇴임, 힘찬이, 휠체어, 구치소, 인성교육, 퇴임음악회, 주안3동성당, 지휘자, 봉사, 빛나는사람, 재능나눔, 노벨상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시작멘트					00:00:08~ 00:00:55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2. 근황					00:00:56~ 00:2:06		
- 2006년 8월 31일 초등학교 교장 정년 퇴임 - 미추홀구 주안동과 주안3동, 학산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음							
3. 생애					00:02:07~ 00:3:57		
- 강원도 태백시에서 태어남 - 안동 경복이 본적이며, 이항 퇴계 선생 13대 손 - 아버지는 한국전력 소장님을 계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자 기관장으로 유치원이나 교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심 - 1964년 강원도 거진 초등학교에서 첫 교직생활 시작 - 깡통에 바다모래와 조개, 쇠붙이를 넣어 리듬악기를 만들어 연주							

하는 등 아이들의 정서 순화를 위한 음악 교육을 주로 시키며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표창을 받기도 함		
4. 초등학교 선생님 ‘이광자’		
- 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보고 자란데다, 어린이들을 좋아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음 -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었던 양정자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그분의 출신 학교인 강릉사범학교에 진학하여 초등학교 선생님이 됨 - 1964년 첫 교사 생활을 시작한 거진초등학교가 지금은 리모델링 되어 지금도 남아 있음 - 거진국민학교에 있다가 황지국민학교로 가게 됨 - 자갈밭 운동장을 아이들과 함께 산에서 흙을 퍼다 날라 모래 운동장으로 바꿈 - 그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이 강원도에서 1등함	00:03:58~ 00:10:49	
5. 음악과 함께한 교직생활		
- 강원도에는 수업 실기대회가 없어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야겠다고 마음 먹음 - 경기도 김포 고창국민학교에 부임하자마자 구령대에서 애국가 지휘를 하고, 합주부를 맡게 됨 - 태백에서는 풍금만 쳤고, 황지에서 학예 발표회를 하며 노래극을 만들었음 - 1979년 인천 산곡국민학교로 부임하며 인천에 입성 - 미추홀구 첫 부임학교는 송의국민학교 - 당시 교실에 아이들이 78명 있었는데, 인천은 물론 다른 도에까지 수업 주의집중으로 알려져, 각 도에서 한 명만 뽑는 1인당 500만원 하는 해외 연수에 가게 됨	00:10:50~ 00:28:43	
6. 엄마 선생님		
- 학익동 법원 앞에 이승기 변호사가 주안북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으로 있을 때 제자임 - 아이들 인성 교육하러 가는 연합초등학교로 이승기 변호사가 법률 강의를 하러 가게 되어 연락이 닿아 재회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되어 변호사 안 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목줄을 책상 앞에 두고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다고 - 결혼을 앞둔 제자를 위해 이광자님 내외가 혼주석에 앉아 줌 - 교직 생활할 때 학생들이 엄마 선생님이라고 불렀음 - 창의적인 수업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 줌	00:28:44~ 00:34:50	
7. 인천 신규 학교 교가를 만들다		
- 태백 황지국민학교에서 교가를 만든 것을 계기로 인천에 와서 27개 학교 교가를 작사작곡함	00:34:51~ 00:40:13	

- 그중 원당고등학교 교가를 만들었는데, 1년 뒤 청소년수련을 떠난 학생 중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던 자폐 학생이 주먹을 쥐고 교가를 불러 눈물바다가 됨 - 작사를 직접 했더라도 첫 해 교장 선생님이 최고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을 새겨 넣었음		
8. 마지막 근무지		
- 삼목분교에서 교사로서 마지막 근무를 함 - 맨날 지각하던 개구쟁이 학생이 수업이 재미있어 열심히 학교를 다게 됨 - 삼목국민학교가 없어지기 전 학생들과 아쉬움을 편지에 적어 병에 담아 물어둠 - 퇴임하기 전 마지막 학교는 효성서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함 -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힘찬이라는 학생을 위해 교육청에 건의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학교에 계단을 다 없애고 길을 만들었음 - 운동회 때 달리지 못하는 힘찬이를 위해 휠체어를 밀며 달리기에 참여해 꼴찌로 들어왔지만,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지며 눈물바다가 됨 - 정년 퇴임하는 날 음악회를 함 - 구치소에 인성 교육하러 가서 “엄마가 왔다” 라고 말하며, 신디 피아노를 가지고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시 낭송을 해주며 마음을 움직임	00:40:14~ 00:55:11	
9. 가족		
- 퇴근이 늦어 자녀들이 늦게까지 기다리는 게 늘 미안했음 - 자녀들이 밤에 잘 때 동화책을 읽어주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음 - 그 영향으로 딸과 아들 모두 음대를 나와 딸은 국악을 전공해 강의를 나가고 있고, 아들은 컴퓨터 회사 사장이 됐음 - 자녀들의 사춘기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 자녀 학교와 근무지가 겹친 적이 없음	00:54:11~ 00:58:12	
10. 인생 2막		
- 주안3동성당에서 지휘자를 한지 20년이 됨 - 관교 노인복지관에서 승학골 서당을 2년 운영하며 훈장 노릇을 함 - 관교 뉴스 아나운서도 하고, 우쿨렐레, 수지침, 체어요가, 곤봉 율동체조, 오카리나 등을 배움 - 지금도 산림문학상, 아동 청소년 문학상, 강원도 사랑 노랫말 대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수상함 -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나의 재능을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지역에	00:58:13~ 01:05:48	

봉사하고 있음 - 활동하는 걸 남편이 싫어했지만, 지금은 “너만큼 일을 한 사람 없을 거야. 잘했어” 라며 응원해줌 - 자녀들은 “엄마는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사람이야. 그 자체가 빛나는 사람이니까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며, 쉬기를 바람			
11. 마무리		01:05:49~ 01:05:49	
- 그동안 했던 일을 수필과 소설로 써 노벨상을 타고 싶음 - 내가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성공했습니다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